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The Relation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Perceived by Children to Their Self-Esteem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졸업 상 미 현
강 사 김 지 신
조 교 수 도 현 심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 Sang, Mi-Hyun

Lecturer : Kim, Ji-Shin

Assistant Prof. : Doh, Hyun-S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부록 |

<Abstract>

The relation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perceived by children to their self-esteem were examined. The subjects were 299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162 boys and 137 girls)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wo kinds of questionnaires on maternal and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a child's self-estee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borns received more differential maternal affection than secondborns, and both boys and firstborns received more differential maternal control than girls and secondborns. Differential paternal control varied as a function of a child's sex and birth order, in which boys and firstborns received more differential paternal control than girls and secondborns, but differential paternal affection did not vary.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s were related to self-esteem only in girls, indicating that the more differential maternal affection they perceived, the higher self-esteem they had, and the more differential maternal control they perceived, the lower self-esteem they had.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s were not related to self-esteem both for boys and girls. The study emphasizes the crucial role of mothers on their daughters.

I. 서론

아동의 발달적 측면과 환경의 영향간의 관계에 관심을 둔 전통적 연구자들은 아동이 속하고 있는 가정내의 환경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 왔다. 그러나 환경적 변인에는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Daniels, 1986; Daniels & Plomin, 1985; McHale, Crouter, McGuire, & Updegraff, 1995; Rowe & Plomin, 1981; Volling & Elin, 1998), 같은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환경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형제관계에 관련된 연구들은 형제간 유사성과 상이성의 근원을 가족이 속한 사회계층, 어머니 직업, 아버지 부재 등 가족원이 공유하는 요인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기 시작했다. 쌍생아에 대한 연구(Rowe, 1981, 1983)에 의하면, 한 가정의 형제뿐만 아니라 쌍생아조차도 그들이 속한 가정환경을 동일하게 지각하지는 않으며, 그들이 부모의 애정과 통제에 대해 지각하는 상관정도는 다른 일반형제들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형제간의 지각차이 연구(Daniels & Plomin, 1985)에서도 대상자의 40% 이상이 부모에 대해 다르게 지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각각의 아동이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지만 각기 다른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를 경험하며, 이러한 미시환경의 경험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Daniels & Plomin, 1985; Rowe, 1983; Rowe & Plomin, 1981).

형제간 비공유환경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처벌을 하는 정도에서 자녀들 간에 차이를 두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Daniels & Plomin, 1985).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신념 또는 고정관념을 가지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동의 성, 출생순위, 연령터울 및 형제간 성별구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나 기대

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애정과 통제적 행동에 있어서 남아는 여아에 비해 부모의 온정을 덜 경험하며(Block, 1983; Maccoby & Jacklin, 1974; Zussman, 1973),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공인숙, 1989; Armentrout & Burger, 1972). 사회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부모는 아동의 성에 따라 기대하는 행동 및 양육유형이 달라서 남아에게는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Block, 1983). 또한 아동의 성과 관련된 부모의 행동은 부모의 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 각각의 부모는 이성의 자녀와 동성의 자녀를 다른 방법으로 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Fagot, 1978; Lamb, 1981).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하나인 경우와 둘인 경우에 부모가 개개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자원과 양육경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첫째아에게 더 긴장되어 있고 걱정이 많으며(Dunn & Plomin, 1986), 보다 엄격한 훈육과 성취압력, 애정표현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1980; Rothbart, 1971). 또한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아버지들은 첫째아에게 다른 순위의 아들이나 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wis & Kreitzberg, 1979).

이와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를 동시에 고려하는 형제간 성구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Jacobs와 Moss(1976)는 어머니들이 첫째아보다 둘째아에게 사회적이고 애정적인 행동을 덜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감소는 형제간 성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둘째아가 첫째아와 동성의 형제일 경우 어머니의 행동은 많이 감소하지만, 둘째아가 첫째아와 성이 다른 경우와 남아인 경우에는 그러한 감소가 덜 하였다. Dunn과 Kendrick(1981)의 연구에서도 부모들은 형제간 성구성에 따라 동성형제보다 이성형제일 경우 둘째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형제가 비공유하는 환경으로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가정환경에 대하여 공유영역의 측면으로 다루어왔다. 비공유영역과 관련하여 한미현(1989)은 초등학교 6학년의 형제가 한명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질과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연구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행동이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및 연령터울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은 반면, 형제간 성구성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 모 각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연구결과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Gecas & Schwalbe, 1986)을 근거로 볼 때, 형제자매가 부, 모 각각에 대해 지각하는 차별적 양육행동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동은 특히 형제를 자기자신보다 편애한다고 지각할 때에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형제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었다(Dunn & Plomin, 1986; Dunn et al., 1986; Stocker, Dunn, & Plomin, 1989). 반면 어머니와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가족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더 많은 책임감이 기대될 때 아동은 심리적으로 더 잘 적응하였다(Daniels & Plomin, 198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아동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의해 받게 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부모의 차별적 대우와 아동의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Daniels, Dunn, Furstenberg, & Plomin, 1985; McHale & Pawletko, 1992)은 양자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할 때, 부모로부터의 차별경험은 아동의 자아가치, 능력에 대한 지각, 정서적 적응 및 문제행동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영역에서 형제간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근

원이 되며(Daniels, 1986; Daniels & Plomin, 1985), 따라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 개인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발달적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발달된다(Harter, 1983). 따라서 부모가 자신을 형제와 비교하여 어떻게 대한다고 지각하는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동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는 지각과 평가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이 발달된다고 볼 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으로 가족이 강조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신보다 형제를 더 편애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수용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고, 나아가 부모로부터 받은 차별경험이 내면화되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적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물론 형제간의 갈등까지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게 한다.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전반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들(Harter, 1983; Gecas & Schwalbe, 1986; Felson & Zielinski, 1989)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부모, 형제와의 경험이 아동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에 근거할 때(Felson & Zielinski, 1989; Gecas & Schwalbe, 1986; Maccoby & Jacklin, 1974),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역시 남녀 아동에게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통제-자율의 측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지지와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cas & Schwalbe, 1986). 또한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도 설명된다. 즉, 여

아들은 의존적인 대인관계를 강조하는 사회화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족지향적이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반영된 평가에 의존하게 되는 반면, 남아들은 기능적, 도구적, 탐색적 활동을 강조하는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념을 자아-귀인의 과정에 의존하여 자아존중감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Block,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해 보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 남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Y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299명(남아:162명, 여아:137명)이다. 연구대상을 아동기 후기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청소년기에 비해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 민감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발달시기이므로 설문지를 통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신의 자아존중감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형제의 수 및 연령차에 따르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 이외의 형제자매가 한 명인 동시에 연령터울이 5년이하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각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친과 함께 동거하는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48.9%이고 둘째아가 51.1%였으며, 형제간 연령차는 1-2년이 39.1%, 3-5년이 60.9%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아

버지, 어머니 모두 40-44세가 가장 높은 비율(아버지: 62.5%, 어머니: 54.2%)이었고,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대졸의 비율(아버지: 57.5%, 어머니: 49.5%)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도 상당히 포함되었다(아버지: 23.7%, 어머니: 8.7%).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회사원 및 교사(36.5%), 전문직(19.7%), 고위관리직(17.4%)의 순이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주부(64.2%), 회사원 및 교사(13.4%), 전문직(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통계청이 제시한 교육별, 직업별 인구분포자료(1994)에 근거하여 볼 때 중, 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도구

1)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Daniels와 Plomin(1985)이 제작한 SIDE(Sibling Inventory of Differential Experience) 중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지각에 관련된 문항들인 Differential Treatment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부록〉참고). 또한 문항내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Rohner(1986)의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한 한미현(1989)의 연구로부터 SIDE의 문항들과 중복되지 않은 문항들을 본 연구의 척도에 포함시켰다. SIDE는 '형제자매를 훨씬 더(1점), '형제자매를 약간 더(2점), '똑같이(3점), '나를 약간 더(4점), '나를 훨씬 더(5점)'의 Likert식 5점척도로 평가된다.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애정요인 9문항과 통제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며 총13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애정요인 1개 문항을 제외한 12개의 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 중 애정요인의 Cronbach's α 는 애정차원이 .84, 통제차원이 .80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 Cronbach's α 는 애정차원이 .78, 통제차원이 .79였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81)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Inventory)를 이현주(1989)가 아동용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자아상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아영역의 25문항으로 구성되며(예: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나는 결심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거의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6개 문항을 제외하고 19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84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

본연구의 조사를 위해, 연구자들 중 한 명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조사방법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에게 배부된 질문지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실시·회수되었다. 배부된 질문지는 430부였으며 이중 당일 회수된 설문지가 427부였고, 외동이 및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형제간 연령차가 5년이 넘는 경우, 부모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여 총 299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남, 녀 아동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차별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F=7.19, p<.01$)를 나타내어 첫째아($M=3.15, SD=.61$)는 둘째아($M=2.98, SD=.51$)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더 애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통제적 차별행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F=4.76, p<.05$)과 출생순위($F=19.8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아($M=3.23, SD=.73$)가 여아($M=3.09, SD=.66$)보다, 첫째아($M=3.35, SD=.69$)가 둘째아($M=3.01, SD=.68$)보다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통제를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차별행동과 통제적 차별행동 모두에서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1> 참고).

한편, 아버지의 애정적 차별행동은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아버지의 통제적 차별행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F=26.56, p<.001$) 및 출생순위($F=47.06,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남아($M=3.32, SD=.76$)가 여아($M=2.97, SD=.67$)보다, 첫째아($M=3.43, SD=.70$)가 둘째아($M=2.93, SD=.69$)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더 많이 통제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어머니 차별행동과 마찬가지로,

<표 1>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

	SS	DF	MS	F
애정적				
성(A)	.15	1	.15	.49
출생순위(B)	2.25	1	2.25	7.19**
A×B	.19	1	.19	.60
오 차	92.41	295	.31	
통제적				
성(A)	2.19	1	2.19	4.76*
출생순위(B)	9.15	1	9.15	19.87***
A×B	.08	1	.08	.17
오 차	135.85	295	.46	

* $p<.05$, ** $p<.01$, *** $p<.001$

〈표 2〉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

	SS	DF	MS	F
예정적				
성(A)	.60	1	.60	2.31
출생순위(B)	.00	1	.00	.01
A×B	.25	1	.25	.95
오차	76.26	295	.26	
통제적				
성(A)	11.87	1	11.87	26.56***
출생순위(B)	21.03	1	21.03	47.06***
A×B	.06	1	.06	.14
오차	131.85	295	.45	

***p<.001

아버지 차별행동의 경우에도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2〉참고).

2.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상이한 발달과정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들(Gecas & Schwalbe, 1986; 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에 근거하여 남, 여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 발견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차이에 근거하여 아동의 출생순위를 통제하였으며, 동시에 출생순위와 차별적 양육행동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고려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예정적 차별행동은 남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여아의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을 더 편애한다고 지각할수록 여아는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으며($\beta = .37, p < .001$), 이는 총변량의 13%를 설명해주었다(〈표 3〉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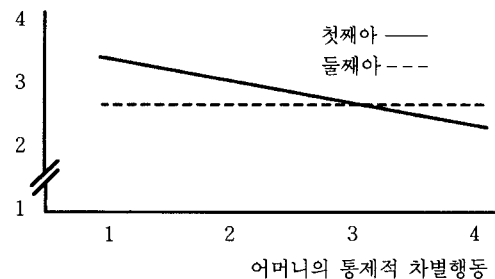
〈표 3〉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회귀 분석

독립변인	남아		여아	
	B	β	B	β
예정적				
출생순위(A)	-.14	-.15	.09	.09
예정적 차별행동(B)	.02	.03	.33	.37***
A×B	.03	.10	-.01	-.04
상수	2.78		1.74	
R ²	.01		.13	
통제적				
출생순위(A)	-.05	-.06	-.95	-1.01*
통제적 차별행동(B)	-.04	.06	-.32	-.44**
A×B	-.04	.15	.29	.95*
상수	2.99		3.80	
R ²	.02		.10	

*p<.05, **p<.01, ***p<.001

어머니의 통제적 차별행동은 남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통제적 차별행동에 따라서 만이인 경우($\beta = -1.01, p < .01$)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더 많이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beta = -.44, p < .001$)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이때 출생순위 및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통제적 차별행동간의 상호작용이 여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서, 둘째아는 첫째아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

여아의 자아존중감



〈그림 1〉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통제적 차별행동의 상호작용효과

다. 또한 첫째아는 자신이 동생보다 어머니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동생이 자신보다 어머니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차별행동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었다(〈그림 1〉 참고).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총변량의 10%를 설명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제간 비공유환경으로서 부모의 애정적·통제적 차별행동이 각각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애정적 차별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첫째아는 둘째아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더 애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통제적 차별행동은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아는 여아보다, 그리고 첫째아는 둘째아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더 통제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통제적 차별행동에서만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남아는 여아보다, 첫째아는 둘째아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더 통제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차별적 양육행동 중에서도 특히 통제적 차별행동이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보다 처벌지향적이고 엄격하며 외부적 기준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음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Block, 1976, 1983),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결과(공인숙, 1989; Armentrout & Burger, 1972)와 일치한다. 한편 애정적 차별행동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남녀평등사상이라는 가치관과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알려져 온 남아편애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경우 첫째아는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통제적으로도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애정적 요인과 통제적 요인으로서 상반되기보다는 각각 하나의 특징적인 양육행동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부모가 첫째아에게 더욱 지시적이고, 엄격하게 훈육하며 성취압력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애정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선행연구결과(Maccoby, 1980; Rothbart, 1971)를 지지해준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아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보다 많은 기대와 걱정의 대상이 되며, 첫째아를 잘 키워야 동생들이 본받는다는 생각(Dunn, 1983)에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부, 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주제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한 가지 제안점이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차별적 양육행동은 형제관계에서 도출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의 한 아동만이 아니라 형제자매 둘 다를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을 설계한다면 부모에 대해 지각된 차별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아의 경우, 양자간의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더 편애한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을 더 많이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통제적 차별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양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즉, 첫째아는 자신이 동생보다 어머니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동생이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둘째아의 경우에는 통제적 차별행동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달리,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며, 차별행동 중에서도 통제적 차별행동의 영향은 출생순위와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가족지향적이어서 부모의 편애와 지원, 또는 통제적 훈육 등 부모자녀 관계에 민감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존적임을 의미한다(Block, 1983; Maccoby & Jacklin, 1974). 따라서 여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들(Felson & Zielinski, 1989; Openshaw, Thomas, & Rollins, 1984)을 지지해준다. 또한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신을 편애한다고 느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을 더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것은 형제에 대한 차별이 정서적인 불안(Dunn & Stoker, 1989)과, 분노와 우울을 야기하며(Daniels et al., 1985; Dunn, Stoker & Plomin, 1990), 정체감혼란과 더불어 자아가치와 정서적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Daniels, 1986; Daniels & Plomin, 1985; McCall, 1983; Dunn & McGuire, 1994)과 일치한다.

한편, 최근들어 아동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에 근거할 때(Brody, Stoneman, & McCoy, 1992),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단, 하나의 가능성은 기존의 연구들이 차별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양육행동요인을 통해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살펴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 차별행동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차별행동의 일치여부에 따른 효과를 다룰 수가 없었다.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일치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차별행동이 일치하는지 혹은 불일치하는지를 구분해야하며, 다음으로 일치한다면 그 방향은 둘다 애정적인지 통제적인지, 혹은 불일치한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불일치하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집단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조사대상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부모의 양육행동의 일치를 강조하는 연구들(McHale et al., 1995; Volling, 1997; Volling & Elins, 1998)에 근거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일치여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는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형제관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차별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통해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부모의 영향력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쪽 부모와의 경험이 다른 쪽 부모와의 경험의 가족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형제에 대한 부모의 편애는 이를 지각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적응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는 해당 아동에게는 부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자녀의 입장에서 형제를 편애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차별행동은 긍정적일 수 없다. 본 연구는 자녀들과의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칫 범하기 쉬운 형제에 대한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 자녀에 대한 공평한 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참고문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할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2) 이현주(198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한미현(1989). 형제자매 구조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행동에 따른 형제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지표.
 - 5) Armentrout, J. A. & Burger, G. K.(1972). Children' repor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7 (1), 44-48.
 - 6) Block, J. H.(1976). Issues, problems, and pitfalls in assessing sex differences: A critical review of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22, 283-308.
 - 7) Block,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8) Brody, G. H., Stoneman, Z., & McCoy, J. K.(1992). Associ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direct and differential behavior with sibling relationships: Com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3, 82-92.
 - 9) Daniels, D.(1986). Differential experiences of siblings in the same family as predictors of adolescent sibling personality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339-346.
 - 10) Daniels, D., Dunn, J., Furstenberg, Jr, F. F., & Plomin, R.(1985). Environmental differences within the family and adjustment differences within pairs of adolescent siblings. *Child Development*, 56, 764-774.
 - 11) Daniels, D., & Plomin, R.(1985). Differential experience of siblings in the sam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747-760.
 - 12)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705-715.
 - 13) Dunn, J.(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 14) Dunn, J., & Plomin, R.(1986). Determinants of maternal behavior towards 3-year-old siblings.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 127-137.
 - 15) Dunn, J. F., Plomin, R., & Daniels, D.(1986). Consistency and change in mothers' behavior toward young siblings. *Child Development*, 57, 348-356.
 - 16) Dunn, J. F., Plomin, R., & Nettles, M.(1985). Consistency of mothers' behavior toward infant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188-1195.
 - 17) Dunn, J., & Stocker, C.(1989).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siblings' experiences within the family. In K. Kreppner & R. Lerner(Eds.). *Family systems and life-span development*(pp. 289-301). Hillsdale NJ: Erlbaum.
 - 18) Dunn, J., & Stocker, C., & Plomin, R.(1990). Non-shared experiences within the family: Correlates of behavior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113-126.
 - 19) Fagot, B. I.(1978). The influence of sex of child on parental reactions to toddler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59-465.
 - Felson, R. B. & Zielinski, M. A.(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20) Gecas, V. & Schwalbe, M. 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21)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NY:Wiley.
 - 22) Lamb, M. E.(1981). The development of father-

- infant relationships: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23) Lewis, M. & Kretzberg, V. S.(1979). Effects of birth order and spacing on other-infant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19-625.
- 24)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Y: Harcourt Brace Javanovich.
- 25) Maccoby, E. E. &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26) McCall, R. B.(1983). Environmental effects on intelligence: The forgotten realm of discontinuous nonshared within family factors. *Child Development*, 54, 408-415.
- 27) McHale, S. M., Crouter, A. C., McGuire, S. A., & Updegraff, K. A.(1995). Congruence between mothers' and fathers'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Links with family relations and children's well-being. *Child Development*, 66, 116-128.
- 28) McHale, S. M. & Pawletko, T. M.(1992).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in two family contexts. *Child Development*, 63, 68-81.
- 29)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B. C.(198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259-274.
- 30) Rothbart, M. D.(1971). Birth order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an achievement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13-120.
- 31) Rowe, D. C.(1981).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 on dimensions of perceived parenting: A twin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03-208.
- 32) Rowe, D. C.(1983). A biometrical analysis of perceptions of family environment: A study of twin and singleton sibling kinships. *Child Development*, 54, 416-423.
- 33) Rowe, D. C., & Plomin, R.(1981). The importance of nonshared(E1) environmental influences in behavi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7(5), 517-531.
- 34) Stocker, C., Dunn, J., & Plomin, D. C.(1989). Sibling relationship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 715-727.
- 35) Volling, B. L.(1997). The family correlates of maternal and paternal perceptions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early childhood. *Family Relations*, 46, 227-236.
- 36) Volling, B. L. & Elins, J. L.(1998).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motional adjustment as correlates of maternal and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 replication with toddler and preschool siblings. *Child Development*, 69, 1640-1656.
- 37) Zussman, J. U.(1981). Situational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Effects of competing cognitive activity. *Child Development*, 51, 792-800.

<부록>

Sibling Inventory of Differential Experience(SIDE)의 차별적 양육행동척도(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Scale)

1. Has been strict with us.
2. Has been proud of the things we have done.
3. Has enjoyed doing things with us.
4. Has been sensitive to what we think and feel.
5. Has punished us for our misbehavior.
6. Has shown interest in the things we like to do.
7. Has blamed us for what another family member did.
8. Has tended to favor one of us.
9. Has disciplined us.

애정요인: 2, 3, 4, 6, 8번 문항

통제요인: 1, 5, 7, 9번 문항